

자외선 차단제의 연구동향

김동욱*

인제대학교 제약공학과

(pedkim@inje.ac.kr*)

자외선(Ultraviolet, UV)은 파장에 따라 자외선 A(320~400nm)와 자외선 B(290~320nm)로 분류되며, 자외선 A는 에너지 강도는 높지 않으나 피부를 깊게 태우고 노화를 유발하며, 자외선 B는 에너지 강도가 높아 피부의 표피까지 침투하며 홍반과 피부암 등을 일으킨다. 자외선 차단제는 화장품 분류상 기능성 화장품에 속하며, 자외선 차단제의 국내시장 규모는 2008년 3,620억원으로 기능성화장품군 중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된 자외선 차단제 관련 특허의 출원인 동향을 살펴보면 2004년까지는 내국인 출원이 총 39건으로 외국인 출원 60건에 비해 적었지만 최근 5년간은 내국인 출원이 120건, 외국인 출원이 83건으로 외국인 출원보다 많아졌다. 최근에는 백합, 숙지황, 대황 등 천연물을 이용한 자외선 차단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5년간은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출원 총 203건 중 71건으로 35.0%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 차단소재가 포함된 썬크림, BB Cream 등의 현황을 개관하고, 장차 연구개발이 기대되는 천연자외선차단제, 유기농소재 등의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